



### 전주교도소, '사랑애 연탄나눔' 으로 온기 전해

전주교도소(소장 운순풍)가 연말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5일 '사랑애 연탄나눔' 행사를 실시해 동절기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연탄 2,000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탄나눔은 교도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전주연탄은행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8가정에 전달됐다. 특히 교도소 이전 대상지역인 작지마을의 한 가정에는 직원들이 직접 연탄을 배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 전주교도소는 매년 '나눔미장학회', '사랑애 연탄나눔', 사회복지시설 위문, 보라미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왔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직자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쌓아온 것이다. /이만호 기자



### 남원중앙교회, 도동동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5일, 남원중앙교회(목사 정중승)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교회가 매년 이어오고 있는 지역사회 사랑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신도 20여명이 10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도동동의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발굴된 난방 취약계층 어르신은 연탄을 전달받고 "연탄만 받는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직접 와서 정성껏 쌓아주니 벌써 집안이 온기로 가득한 느낌이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운봉농협, 김치 나눔행사 진행

남원시 운봉농협(조합장 오용담)은 지난 4일, 농협 서림경제사업소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온정담은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운봉농협 직원과 운봉남녀새마을회원, 운봉농협청년회, 운봉읍 직원 등 총 8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정성스럽게 담근 김장김치는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운봉농협은 지난 2016년부터 10년째 연말마다 김장 나눔 행사를 이어오며 지역 공동체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꾸준한 나눔 활동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아영면, 겨울철 난방용품 · 난방유 지원

남원시 아영면 행정복지센터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을 돕기 위해 겨울철 집중 보온 지원사업으로, 10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별 복지 욕구에 따라 난방용품 및 난방유를 실효성 있게 지원했다. 두 가구에 전기매트를 전달해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복지에 나서고, 전기매트 사용 시 안전수칙 안내, 겨울철 화재 예방 교육, 주거환경 점검 등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병행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난방유를 사용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는 내의, 자켓, 양말 등 20만원 상당 방한용품을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7가구에 20만원 상당 난방유 쿠폰을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교통안전 상생나눔, 마음 있는 든든한 동행

한문철TV, 전북자치도에 2억원 상당 교통안전물품 전달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5일 도청에서 한문철TV와 DB손해보험과 함께 교통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물품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한문철 변호사, 심재철 DB손해보험 신사업부문 부부장(부사장급),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및 배달라이더 관계자,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탁은 교통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 어르신과 배달라이더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한문철TV와 DB손해보험은 총 2억 원 상당의 안전물품을 기부했다. 기탁 물품은 농촌 어르신을 위한 패딩 500개, 겨울모자 500개, 농업용 기계안전 망토 500개 등 1억 원 상당이다. 배달라이더를 위해서는 패딩 500개, 발광조끼 500개, 헬멧커버 및 부착 스티커 각 500개 등 1억 원 상당을 제공했다. 농촌 어르신용 안전물품은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소속 단체를 통해 배부될 예정이다. 배달라이더용 물품은 기탁식 참석자와 도내 배달업체, 노동권익센터를 거쳐 전달된다. 전북도는 이번 기탁을 계기로 야간 교통안전용품 보급을 확대하고, 농촌 고령농 및 어르신과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달라이더를 위한 조성, 복리증진 지원사업 등 민관 협력 기반의 교통안전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10만 6,000명의 농업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동노동자를 위한 거점 및 간이쉼터 5개소를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지원사업 예산 5,000만 원을 반영해 쉼터 설치 확대, 산재보험료 지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급을 확대하고, 농촌 고령농 및 어르신과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달라이더를 위한 조성, 복리증진 지원사업 등 민관 협력 기반의 교통안전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10만 6,000명의 농업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동노동자를 위한 거점 및 간이쉼터 5개소를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지원사업 예산 5,000만 원을 반영해 쉼터 설치 확대, 산재보험료 지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2025 김제시자원봉사 한마음대회 개최

김제시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운권)가 지난 5일 시청 대강당에서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 및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김제시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05년 자원봉사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스무 번째를 맞는 뜻깊은 해에 열려 더욱 의미를 더했으며,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공연과 감사 메시지가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자원봉사자 간의 결속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활동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운권 이사장은 "김제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은 지역사회의 희망과 나눔을 실천하는 빛과 같은 존재"라며 "이번 한마음대회가 봉사자분들의 노력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 봉사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자원봉사자들 간의 결속을 다지고,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태 기자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 봉사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자원봉사자들 간의 결속을 다지고,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태 기자

## 제24회 무주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성료

지난 5일 무주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제24회 무주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개최됐다.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한마음대회는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과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등 25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2025년 자원봉사활동 영상물 시청, △기념식,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들의 순가락 난타 및 봉트리 봉사단의 패션쇼 등 행사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식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대회를 통해 '밀반찬 행복꾸러미' 및 '사랑의 열매봉사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던 임미화 사랑의 열매 무주지회 단장 외 3명이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대희 한국역사교육연구소 팀장 외 1명은 전북특별자치



### 부안 하서면,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해단식 개최

부안군 하서면은 지난 5일 하서면사무소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사업에 참여한 어르신 약 50명을 대상으로 해단식을 개최하고, 2026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안내 및 신청접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가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공익활동에 참여하며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인사말씀을 통해 "어르신들의 참여와 헌신이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더 따뜻한 부안을 만들어 주셨다"며 "부안군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일자리사업 참여가 건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으며 정현희 무주중학교 학생 외 5명이 도교육감 표창을 수상했다. 장문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팀장 외 1명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유엔아이인슈컨설팅 대표, 무주군에 장학금 기탁

(주)유엔아이인슈컨설팅 백강현 대표가 5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을 방문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무주군 실천면에 거주하는 백 대표는 "무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재 육성에 해마다 마음을 보태고 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아이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업인으로서 지역과의 상생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는 백 대표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무주군에 1천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전하며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주)유엔아이인슈컨설팅은 보험 대리 및 중개업체로 백강현 대표는 2011년부터 무주와 인연을 오가며 기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거주지인 무주군 실천면 청량리 일원에 3,300㎡ 규모의 회사 직원용 실버타운을 신축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아름다운 여행지, 진안 주천생태공원 '대상' 영예

진안의 가을 여행 성지인 주천생태공원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 관광 공모전(사진 부문)'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여행지로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이정희 작가의 출품작 '주천의 가을'은 주천생태공원의 붉게 물든 단풍과 잔잔한 수면의 반영이 만들어 낸 풍광적 경관을 담아 심사위원단의 극찬을 받았다. 진안의 대표 관광지인 마이산을 담은 '마이산 일출과 운해'(이은숙)도 금상(문화관광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진안의 자연 풍광이 사진예술 분야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마이산은 사계절이 명확하고 일출·운해·단풍 등 변화하는 절경으로 유명해, 전국 사진가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촬영 명소로 꼽힌다. 이번 공모전은 "내가 찾은 한국의 아름다운 순간(MY PICK, MY KOREA)"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총 7,439점이 접수됐다. 국민 참여를 포함한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97점이 선정됐으며 대표적으로 이 중 두 작품이 진안을 배경으로 수상했다. /진안=유태민 기자



### 전주대 사범대, 지역사회에 연말 인형 기부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사범대학은 지난 5일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아동복지 기관 전주시 소재 삼성후원반(구, 삼성보육원)에 연말 인형 기부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 활동은 전주대학교 제42대 결 사범대학 학생회와 사범대학 교직원이 공동 주최하여 자발적인 나눔 참여를 통해 사범대학 구성원의 사회적 책임과 이웃에 대한 정서적 돌봄,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라는 교육철학을 실천하고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장은성 기자



### 부안멸치국수, 군에 인재육성 장학금 120만원 전달

부안멸치국수(대표 정진엽)는 지난 4일 부안군농농인재육성재단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20만원을 기탁했다. 정진엽 대표는 "지역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만큼 그 마음을 학생들에게 다시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게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안군 부안읍에 위치한 부안멸치국수는 멸치 육수의 깊은 맛을 바탕으로 한 정갈한 국수 메뉴로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곳으로, 간소한 한 끼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서민 맛집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김제 용지면 주민자치위, 2025년 운영 성과 보고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환)가 최근, 12월 정기 월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위원들의 참여와 협력 속에 2025년 한 해 추진한 다양한 사업과 주민 참여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위원회는 △주민자치 특색사업 <옥수수 행복 나눔> △ 관내 국토 대청결 운동 △ 기존 유휴지를 활용한 <콩 재배·나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과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내년도에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환 주민자치위원장은 "올해 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민 여러분과 함께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참 기쁘다"고 말했다. 박선화 용지면장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이 힘을 모아 내년도에 다양한 참여 기회를 늘리고, 함께 즐겁게 지역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태 기자